



신한통신통연금보험 생존자 재분배 구조 배타적사용권 심층분석

조기 사망·해지자의 적립 차익을 생존자에게 재분배해
장수할수록 연금이 커지는 국내 최초 한국형 통신통연금

PRODUCT ANALYSIS

분석 대상 · 신한라이프 신한통신통연금보험 [무배당, (사망·해지)일부지급형]

분석 관점 · 시니어 보험상품 분석가 / 배타적사용권 심사·신상품 개발

작성 · 2026. 06



EXECUTIVE SUMMARY

총평

본 상품은 **톤틴(tontine) 원리**를 국내 제도에 맞게 재구성한 연금보험이다. 연금개시 전 사망·해지 시 적립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그 차액(**톤틴효과+저해지효과**)을 **생존유지적립액**으로 모아 연금개시 시점에 생존자의 연금재원에 더한다. 즉 조기 이탈자의 적립 차익이 장기 생존자에게 재분배되어, **장수할수록·개시를 늦출수록 연금이 커진다**(70세 개시 시 일반형 대비 138%). 실제로 본 상품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12개월 배타권**을 획득했다 — 최대 기간이자 생보업계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분석가 관점에서 이 상품의 본질은 **사망 크레딧(mortality credit)**과 **해지 크레딧(lapse credit)**을 풀링해 **생존자에게 이전하는 적립 산출**에 있다. 같은 톤틴 구조는 일본 니혼생명 그랑에이지(2016) 등에 선례가 있어 "업계 최초"는 **국내 최초**가 정확하다. 다만 일본 상품이 조기 사망·해지 시 **원금손실(元本割れ)**을 감수하는 데 비해, 본 상품은 금융위 가이드에 따라 **사망지급금 ≥ 기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0년 이후 100%**로 원금손실을 제거한 점이 차별적 진보다.

결론 — 규제(톤틴·저해지 도입방안)·해외 선례·소비자보호를 결합해 완성도가 높고, 다섯 상품 중 가장 강한 배타권(12개월)을 받았다. 핵심 리스크는 계리 가정에 있다: (1) **장수 역선택**(건강 체 쏠림 → 사망 크레딧 감소 → 138% 약속 미달), (2) **해지율(저해지 크레딧)이 연금재원의 funding source**여서 유지율 가정이 상품성·수익성을 좌우(위험률식 제외 원칙의 예외), (3) 1보험기간 톤틴이라 **연금개시 후 장수리스크는 여전히 보험사 부담**이라는 점이다. 본 분석 추정 종합 약 87/100(실제 12개월 배타권과 정합).

PROPOSAL SUMMARY

제안 사항 요약

원상품의 핵심 가치(장수 대비 + 원금손실 없는 환급 보장)를 유지하면서, 장수 역선택·유지율 의존·풀 규모 리스크를 보완하고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제안한다.

프레임	핵심 제안	요지
확장	간병·건강 연계 톤틴	장수 4대 리스크 중 "유병장수"에 대응해 연금에 간병·치매 트리거(선지급·증액)를 결합, 신한 요양사업과 연계
집중	시니어·건강체 집중	일본처럼 50~70대 시니어와 장수 자신감 건강체를 정조준한 플랜으로 톤틴 효과·풀 안정성 강화
전환	개시 시점·수령형태 유연화	개시 연기 인센티브 시각화, 제2보험기간 톤틴·일시금↔연금 전환으로 장수 보상 극대화
재구성	"생존 보너스" 정직한 포지셔닝	"138%"의 조건부성(개시 후 생존 가정)을 명확히 하고 1인가구·비혼 시니어로 세그먼트 확장



추진 순서 추천

단계	과제	준비사항
1단계 즉시	장수 역선택·유지율·폴규모 가정 점검	건강체 쏠림에 따른 사망 크레딧 민감도, 해지율 시나리오별 생존유지적립액 변동, 초기 폴 규모의 재분배 변동성·K-ICS 영향 정량화
2단계 즉시	불완전판매 방지	"조기 사망·해지 시 상대적 기회손실", "138%는 개시 후 생존 가정" 명확 고지. 상품판매자격·해피콜 운영 점검
3단계 단기	개시 유연화·수령형태 다양화	개시 연기 인센티브·제2보기 토티·연금 전환 옵션 설계·요율 검증
4단계 중기	간병 연계·세그먼트 확장	간병·치매 트리거 결합(요양사업 연계), 1인가구·시니어 마케팅



SECTION 01

상품구조 해부

주계약은 사망을 보장(연금개시 전 80% 이상 재해장해 시 1,000만원, 개시 후 종신형)하며, 핵심은 **(사망·해지)일부지급형** 구조다. 연금개시 전 사망·해지 시 적립액을 **일부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생존자 연금재원으로 재분배한다.

사망지급금	Max(기납입 기본보험료, 일반형 기본계약자적립액 × 70%) + 추가계약자적립액 — 적립액의 일부만 지급(원금은 보장)
해약환급금	Min(기납입 기본보험료 × r, 일반형 기본해약환급금) + 추가계약자적립액 (r: 10년 미만 50%, 10년 이상 100%)
생존유지적립액 (업계 최초)	연금개시 전 사망·해지로 발생한 미지급분(톤틴효과+저해지효과) 을 적립해 연금개시 시점 유효 계약의 연금재원에 가산 (개시 전 해지·사망 시 미지급)
연금개시보너스	기납입 기본보험료 × 보너스율 (1보기 20년+ 20%, 25년+ 25%, 30년+ 30%, 35년+ 35% / 해지 시 미지급, 사망 시 지급)
연금개시 후	종신형(정액형·보증기간집중형) — 안정적 지급

"1보험기간 톤틴(Hybrid Tontine)"의 구조

전통적 톤틴이 "Winner Takes All"의 고위험·고수익이라면, 본 상품은 **톤틴 효과를 연금개시 전(거치기간)까지로 한정**하고 개시 후에는 안정적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하이브리드다. 즉 재분배의 변동성을 거치기간에 가두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구조의 본질 — 사망·해지 크레딧 풀링

조기 사망자는 적립액의 약 30%(원금 초과 성장분)를, 조기 해지자는 저해지분을 **포기**하고, 이 포기분이 **생존자에게 이전**된다. 이것이 "장수할수록 연금이 커지는" 재원이다. 소비자보호 장치(사망 ≥ 기납입보험료, 해약 10년 이후 100%)로 **원금 자체는 잃지 않고 "성장분·기회"만 재분배**되도록 설계한 점이 핵심이다.



국내외 유사 상품 조사

2.1 국내 유사 상품

국내 개인연금은 **확정연금·종신연금(공시이율형·금리연동)**이 주류이며, 각 계약의 적립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생존자 간 재분배가 없다**. 저금리·저수익으로 생보 연금 신계약은 125만건('14)→25만건('23)으로 급감했고, 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액은 32%로 OECD(82%)·미국(130%)에 크게 못 미친다. 본 상품은 **재분배(톤틴)와 저해지를 결합해 연금액을 높인 최초의 국내 연금**으로, 기존 연금과 범주가 다르다.

구분	대표 유형	구조	본 상품과의 차이
지급방법 유사형 종신연금	공시이율형 종신연금	개인별 적립, 재분배 없음	본 상품은 생존자 재분배로 연금 증액
저해지 유사형 저·무해지 연금	해약환급금 축소로 보험료 ↓	저해지 효과만	저해지 + 톤틴(사망 크레딧) 결합이 신규
재분배 결합형 국내 공백	톤틴 + 저해지 연금	—	본 상품이 최초(배타권 대상)

2.2 일본 유사 상품

일본에는 **거의 동일한 선례**가 있다. 니혼생명 그랑에이지(長寿生存保険, 2016)와 다이이치생명 나가이키 이야기(2017)는 **연금개시 전 사망·해약환급금을 약 70%로 억제하고, 그 차액(사망자의 지분)을 생존자의 연금원자로 이전해 연금액을 키운다**. 본 상품의 톤틴효과·저해지효과와 본질이 같다.

결정적 차이는 **소비자보호**다. 일본 상품은 조기 사망·해지 시 **원금손실(元本割れ)**이 발생한다(예: 89세 사망 시 약 300만엔 손실). 반면 본 상품은 금융위 가이드에 따라 **사망지급금을 기납입보험료 이상으로, 해약환급금을 10년 이후 100%로 보장해 원금손실을 제거했다**. 즉 원금이 아닌 "성장분·기회"만 재분배한다.

시사점

(1) 톤틴연금은 일본(2016~)에 검증된 구조여서 "업계 최초"는 국내 최초로 평가해야 한다(독창성에 영향). (2) 본 상품의 진보는 **일본형 톤틴에 원금보장·소비자보호를 결합해 국내 제도에 최적화한** 데 있다. (3) 일본 상품의 원금손실 민원 이력은 본 상품이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둔 이유를 설명한다 — 이 점이 12개월 배타권의 핵심 근거로 평가된다.



SECTION 03

계리적·법률적 해석

본 상품은 의료 트리거가 아니라 **연금 적립·재분배 구조**이므로, 계리(장수·해지 폴링)와 회계·소비자보호 측면의 해석이 핵심이다.

계리적 해석 — 사망·해지 크레딧

전통적 종신연금에서 보험사는 장수리스크를 홀로 부담한다. 톤틴은 이 리스크를 **가입자 풀이 공유**한다. 조기 사망자가 포기한 적립 차익(**사망 크레딧, mortality credit**)과 조기 해지자가 포기한 저해지분(**해지 크레딧, lapse credit**)이 생존자에게 이전되어 연금을 키운다. 핵심은 이 두 크레딧을 **생존유지적립액으로 수리적으로 연계**한 산출이며, 이는 사망률뿐 아니라 **해지율**에도 구조적으로 의존한다.

법률·소비자보호 해석

이 상품은 금융위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방안**"(**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2025.3**)이라는 규제 가이드에 근거해 설계됐다. 가이드는 사망지급금(기납입보험료와 적립액 70% 중 큰 금액), 해약환급금(일반보다 적게), 소비자보호장치(상품판매자격제도·설명 강화)를 요구하며, 본 상품은 이를 준수하고 **10년 이후 해약환급금 100%**로 한 겹 더 보수적으로 설계했다.

해석이 위험에 주는 함의

- **순기능** — 원금손실을 제거해 일본형 톤틴의 민원 리스크를 줄였고, 규제 co-design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
- **주의** — "장수할수록 이득/138%"는 **개시 후 생존을 전제**한 조건부 가치다. 조기 사망·해지 시 원금은 보장되나 재분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 기회손실**이 발생하므로, 이 비대칭의 명확한 고지가 불완전판매 방지의 핵심이다.



SECTION 04

위험률·적립 산출 방법론 추정

본 상품의 신규성은 위험률이 아니라 **생존유지적립액(사망·해지 크레딧 풀링)** 산출에 있다. 따라서 ① 기초율, ② 생존유지적립액, ③ 생존자 연금재원·연금연액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보장 위험률식에는 유지율을 반영하지 않으나, **본 상품은 해지율(저해지 크레딧)이 연금재원의 funding source**이므로 유지율·사망률이 산출의 핵심 입력이다(원칙의 명시적 예외).

① 기초율

연금개시 전 **사망률 $q_{\text{사망}}$** (톤틴효과 발생), **해지율 $q_{\text{해지}}$** (저해지효과 발생), 개시 후 **경험연금생명표**(장수리스크)와 **적립이율·할인율(금리)**이 입력이다.

② 생존유지적립액 — 크레딧 풀링(신규성)

$$\text{생존유지적립액} = \sum_{\text{사망}} (V_t - B_{\text{사망},t}) + \sum_{\text{해지}} (W_{\text{일반},t} - W_{\text{저해지},t})$$

V_t : t시점 일반형 기본계약자적립액

$B_{\text{사망},t}$: 사망지급금 = Max(기납입보험료, $V_t \times 70\%$) → 첫째 항 = 톤틴효과(사망 크레딧)

$W_{\text{일반},t} - W_{\text{저해지},t}$: 해약 미지급분 → 둘째 항 = 저해지효과(해지 크레딧)

③ 생존자 연금재원과 연금연액

$$\text{연금재원}_{\text{생존}} = V_{\text{본인}} + (\text{생존유지적립액} \div \text{생존자 배분}) + \text{연금개시보너스}$$

연금개시보너스: 기납입 기본보험료 $\times$ 보너스율(20~35%)

연금연액 = 연금재원_{생존} $\div$ $\ddot{a}_{\text{개시연령}}$ (연금현가, 경험연금생명표·금리)

핵심 — 두 가정이 138%를 좌우: 재분배 크레딧은 **사망률(조기 사망 비중)**과 **해지율(조기 해지 비중)**에 정비례한다. 따라서 (1) 장수 역선택으로 풀이 건강체로 쏠리면 사망 크레딧이 줄어 약속 연금이 미달될 수 있고, (2) 실제 해지율이 가정보다 낮으면 저해지 크레딧이 줄어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 유지율은 일반 보장상품과 달리 **이 상품에서 수익·급부의 직접 입력**이다.

산출 데이터·가정 추정

필요 데이터·가정	구분	후보 소스	가용성·접근
$q_{\text{사망}}$ (개시 전 사망률)	기초율	경험생명표·KIDI, 자사 경험	표준 · 장수 역선택 보정
$q_{\text{해지}}$ (해지율)	기초율	자사 해지경험, 업계 해지율	핵심 입력 · 크레딧 funding
연금생명표(개시 후)	장수	경험연금생명표, 장수개선 추세	개시 후 장수리스크
적립이율·할인율	금리	시장금리·ALM 시나리오	금리리스크 직접



필요 데이터·가정	구분	후보 소스	가용성·접근
폴 규모·구성	운영	가입 시뮬레이션·집단 모니터링	재분배 변동성

실제 산출은 best estimate $\pm$ 민감도(역선택·해지율·금리)로 수행한다. 1보험기간 톤틴이라 개시 후 종신연금의 장수리스크는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재분배가 보험사 자본을 줄여주는 효과는 주로 거치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을 가격·자본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SECTION 05

기초 통계 추정 및 정합성 검토

138%

70세 개시 연금(일반형 대비)

94만원

월 추가 노후소득 필요

125→25만건

생보 연금 신계약('14→'23)

지표	신청자료 기재	대조·해석	정합성
노후소득 공백	적정생활비 197만, 공적 45+퇴직58, 추가 94만	통계청·국민연금연구원 정합	타당
은퇴후 생존기간	11년('00)→17년('20)→18년('30E)	OECD·KDI	타당
연금시장 위축	생보연금 신계약 125→25만건, 사적연금 GDP 32%	생보협회·OECD	타당
연금 증액	60세 119%·70세 138%·80세 169%	공시이율 2.4% 가정 예시	가정의존·역선택·해지율 민감
일본 선례	2016 토탈연금 출시	그랑에이지(2016)·나가이키(2017)	일치(국내 최초로 한정)

정합성 핵심 — 138%의 조건부성과 가정 민감도

"같은 30만원, 70세 개시 138%"는 **공시이율·사망률·해지율 가정과 개시 후 생존**을 전제로 한 예시값이다. (1) 장수 역선택으로 사망 크레딧이 줄거나 해지율이 가정보다 낮으면 실제 증액은 138%에 미달할 수 있다. (2) 80세 개시 169%는 개시를 늦출수록 커지지만, 그만큼 **수령 기간이 짧아지고 개시 전 사망·해지 위험**이 커지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유용성 소구는 "확정 138%"가 아니라 "**장수 시 상향되는 기대 연금 + 원금보장**"으로 정렬하는 것이 정확하다.



리스크 진단

장수 역선택 (Longevity anti-selection)

تونتن 고유 의 핵심 리스크. 생존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 **장수를 자신하는 건강체가 집중**된다. 풀이 건강체로 쏠리면 조기 사망이 줄어 **사망 크레딧이 감소**하고, 약속한 연금 증액(138%)이 미달될 수 있다. 표준 경험사 망률을 그대로 쓰면 과대평가 위험이 있어 역선택 보정이 필요하다.

유지율(해지 크레딧) 리스크

원칙의 예외 — 핵심. 저해지효과(해지 크레딧)가 생존자 연금재원의 funding source이므로, **실제 해지율이 가정과 다르면 생존유지적립액이 변동**한다. 해지율이 낮으면 크레딧이 줄어 연금 증액이 미달되거나 보험사가 차액을 부담한다. 유지율 가정이 상품성·수익성을 직접 좌우한다.

장수리스크·금리 (개시 후)

1보험기간 톤틴이라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의 장수리스크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톤틴은 거치기간 비용을 낮출 뿐, 개시 후 보증을 없애지 않는다. 연금생명표 개선(장수)·금리 변동 시 K-ICS 장수·금리 요구자본 부담이 남는다.

풀 규모·불완전판매

톤틴은 **풀이 작으면 재분배 변동성(idiosyncratic risk)이 커** 초기 가입 규모 확보가 중요하다. 또 "장수할 수록 이득"의 조건부성(개시 후 생존 전제, 조기 이탈 시 기회손실)으로 **불완전판매 민원** 소지가 있다 — 원금손실은 제거했으나 비대칭의 고지가 필요하다.

리스크	수준	완화 장치
장수 역선택	높음	역선택 보정 사망률, 가입연령·심사, 풀 모니터링
유지율(해지 크레딧)	높음	해지율 민감도·시나리오, 보수적 가정, 사후 정산 메커니즘
개시 후 장수·금리	중~높음	연금생명표 개선 반영, ALM/헤지, K-ICS 자본 관리
풀 규모 변동성	중	초기 가입 규모 확보, 집단 단위 산출
불완전판매	중	상품판매자격·해피콜, 조건부성·기회손실 고지(원금보장으로 일부 완화)



경쟁사 대응 시나리오

카피 가능성

톤틴·저해지 구조는 **금융위 도입방안(2025.3)**이라는 공개 가이드와 **일본 선례가 있어** 개념·골격의 모방은 어렵지 않다. 실질 진입장벽은 개념이 아니라 **크레딧 풀링 적립 산출 시스템·요율 검증·소비자보호 운영**이다. **12개월 배타권(최대)**은 가장 강력한 선점 기간을 제공한다.

대체 상품 출시 경로

- **저해지 연금 변형** — 저·무해지 연금에 톤틴성(사망 크레딧)을 부분 결합한 단순화 버전.
- **일본형 직수입** — 그랑에이지형 구조를 가이드 범위 내에서 출시(원금보장 수준 차등).
- **외화·변액 결합** — 외화·변액 연금에 톤틴성을 얹어 수익률로 차별화.

차단 전략

(1) **운영 데이터·풀 선점** — 12개월간 가입 풀과 크레딧 실적 데이터를 축적해 후발자가 따라올 수 없는 산출 정교함을 확보. (2) **소비자보호 표준 선점** — 원금보장·설명체계를 시장 표준으로 각인. (3) **간병·요양 연계**(§ 9)로 단순 톤틴을 넘어선 생태계 차별화(신한 요양사업). (4) **제2보험기간 톤틴 등 후속 라인업**으로 카테고리 주도.



상품개선 제안

원상품 가치 해체

핵심 기능	조기 사망·해지자의 적립 차익(사망·해지 크레딧)을 생존자에게 재분배해, 원금손실 없이 장수할수록 커지는 종신연금을 제공한다.
고객 Pain Point	노후소득 공백(추가 월 94만)과 장수리스크. 종신연금은 비싸 가입이 어렵고, 기존 연금은 저수익으로 매력이 낮다.
제공 가치	장수 대비 소득 상향 + 원금보장 환급 + (보험사) 자본효율. "오래 살수록 이득"의 안심.

→ 위 3요소를 출발점으로, 확장·집중·전환·재구성 4프레임으로 제안한다(프레임별 2개).

확장 ①

간병·치매 연계 톤틴

장수 4대 리스크 중 "유병장수"에 대응해 연금에 간병·치매 트리거를 결합한다(보장 대상·단계 확장, 신한 요양사업 연계).

1. **담보 정의** — 장기요양·치매 진단 시 연금 선지급·증액 또는 간병 정액 결합.
2. **보장 방법** — 연금개시 후 상태 악화 시 지급 가속.
3. **보장금액 제안** — 기본 연금 + 간병 단계 가산.
4. **대상 고객** — 노후 간병 우려 시니어.
5. **차별화 포인트** — 톤틴 소득 + 간병 보장으로 단순 연금 카피 방어, 요양 생태계 연계.
6. **위험요소** — 간병 위험률 장기 불확실성, 장수·간병 동시 부담.

확장 ②

제2보험기간 톤틴·거치 연장

개시 연기·제2보험기간 톤틴으로 장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시간축 확장, 문서의 "제2보기 연금" 언급).

1. **담보 정의** — 개시 후에도 일부를 재거치해 추가 톤틴 효과 부여.
2. **보장 방법** — 단계적 개시·재분배 2차 적용.
3. **보장금액 제안** — 초고령 구간 연금 추가 상향.
4. **대상 고객** — 초장수 대비 고객.
5. **차별화 포인트** — 초고령 소득 강화로 차별적 장수 보상.
6. **위험요소** — 구조 복잡도·이해도, 풀 변동성.



집중 ①

시니어(50~70대) 집중 플랜

일본 그랑에이지처럼 즉시·단기 거치형으로 시니어를 정조준한다(고가치 세그먼트 집중).

1. **담보 정의** — 50~70대 가입·단기 거치 후 개시 플랜.
2. **보장 방법** — 짧은 거치로 빠른 개시, 톤틴 효과 집중.
3. **보장금액 제안** — 고액 일시납·시니어 맞춤.
4. **대상 고객** — 은퇴 직전·직후 시니어.
5. **차별화 포인트** — 일본 주력 세그먼트 검증된 수요.
6. **위험요소** — 고령 역선택, 짧은 거치의 크레딧 제약.

집중 ②

건강체 장수 집중형

장수 자신감 건강체를 별도 풀로 모아 역선택을 상품성으로 전환한다(우량 세그먼트 집중).

1. **담보 정의** — 건강체 전용 톤틴 풀(별도 사망률 가정).
2. **보장 방법** — 건강등급 기반 풀 분리.
3. **보장금액 제안** — 건강체 맞춤 증액.
4. **대상 고객** — 비흡연·건강검진 우량 시니어.
5. **차별화 포인트** — 역선택을 분리·가격화해 풀 안정성 확보.
6. **위험요소** — 풀 세분화로 규모 축소, 변동성 ↑.

전환 ①

개시 시점·수령형태 유연화

개시 연기 인센티브를 시각화하고 일시금↔연금 전환을 유연화한다(지급방식·기간 전환).

1. **담보 정의** — 개시 연령 선택 폭 확대, 부분 일시금 옵션.
2. **보장 방법** — 개시 연기 시 증액 곡선 제시.
3. **보장금액 제안** — 연기 구간별 차등 증액.
4. **대상 고객** — 자금계획 다양한 고객.
5. **차별화 포인트** — "늦출수록 커지는" 장수 보상의 직관적 전달.
6. **위험요소** — 안티셀렉션(개시 시점 선택), 가정 복잡.

전환 ②



크레딧 가시화·정산 투명화

재분배 크레딧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가시화해 신뢰·이해를 높인다(현물 정보 서비스 전환).

1. **담보 정의** — 생존유지적립액 누적·예상 증액을 정기 안내.
2. **보장 방법** — 연 1회 크레딧 리포트 제공.
3. **보장금액 제안** — 기존 유지 + 투명 정산.
4. **대상 고객** — 전 가입자.
5. **차별화 포인트** — 토티의 "보이지 않는 크레딧"을 가시화해 이해·유지율 제고.
6. **위험요소** — 변동성 노출 시 민원, 시스템 부담.

재구성 ①

"생존 보너스" 정직한 포지셔닝

"138%" 단정 대신 "장수 시 커지는 생존 보너스 + 원금보장"으로 메시지를 재정의한다(메시지 재구성).

1. **담보 정의** — 동일 급부, 조건부성·원금보장을 함께 소구.
2. **보장 방법** — 기대 연금 범위·조건 명확 제시.
3. **보장금액 제안** — 기존 유지.
4. **대상 고객** — 장수 대비·안정 지향 고객.
5. **차별화 포인트** — 신뢰 기반 메시지로 민원·불완전판매 리스크 관리.
6. **위험요소** — 단정적 소구 대비 마케팅 임팩트 일부 완화.

재구성 ②

1인가구·비혼 시니어 타겟

상속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쓰는 돈"을 중시하는 1인가구·비혼층으로 세그먼트를 확장한다(세그먼트 재구성).

1. **담보 정의** — 상속 최소화·생존소득 극대화 플랜.
2. **보장 방법** — 토티성 강조형(가이드 내 최대 증액).
3. **보장금액 제안** — 생존소득 극대 구성.
4. **대상 고객** — 1인가구·비혼·독거 시니어(2050년 고령가구 41% 독거 전망).
5. **차별화 포인트** — 일본 시니어 가입 패턴과 정합, 신규 수요 개척.
6. **위험요소** — 독거·건강 취약 시 역선택·민원.



SECTION 10

부록·참고자료

시장·노후소득 통계

노후소득 공백	적정생활비 197만원/월, 공적연금 45만+퇴직연금 58만 → 추가 준비 94만원(통계청·국민연금연구원, 2025)
은퇴후 생존기간	11년('00)→17년('20)→18년('30E) (OECD·KDI)
연금시장	생보 연금 신계약 125만건('14)→25만건('23), ETF 19.7조→173조('24). GDP 대비 사적연금 32%(한국)/82%(OECD)/130%(미국) (생보협회·금감원·OECD)

해외 선례

일본 토탄연금(2016~)	니혼생명 그랑에이지(長寿生存保険, 2016)·다이이치 나가이키 이야기(2017)·かんぽ・太陽生命. 사망·해약환급금 약 70% 억제→생존자 재분배. 조기 사망·해지 시 원금손실(元本割れ) — 본 상품은 원금보장으로 차별화
----------------	---

정책·계리·건전성

규제 가이드	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방안(2022.11)·보험산업 미래대비방안(2025.3) — 토탄·저해지 연금보험 도입방안(사망지급금·해약환급금·소비자보호 기준)
기초율·적립	경험생명표·연금생명표·KIDI, 자사 사망·해지 경험. 생존유지적립액(사망·해지 크레딧) 산출
건전성	K-ICS 장수·금리 리스크, IFRS17 — 개시 후 종신연금 장수리스크는 보험사 부담

실제 심사 결과

- 2026년 1월 출시, 2026년 2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12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최대 기간이자 생보업계 역대 두 번째 12개월 사례(신한라이프 2022년 첫 사례에 이은)
- 인정 사유 — 토탄 개념의 국내 제도 재구성, 사망·해지 지급과 생존자 재분배의 결합, 약 2년 운영 가능성 검증(독창성·유용성·노력도)

본 보고서의 산출 내용은 데이터 확보 전 방법론·구성요소 추정 단계다. 보장 위험률과 달리 본 상품은 **사망률·해지율이 생존유지적립액(급부)의 직접 입력**이며, 장수 역선택·해지율·금리 가정과 풀 규모가 연금 증액(138%)과 수익성을 좌우한다. 통계·수치는 공개 시점 기준이다.